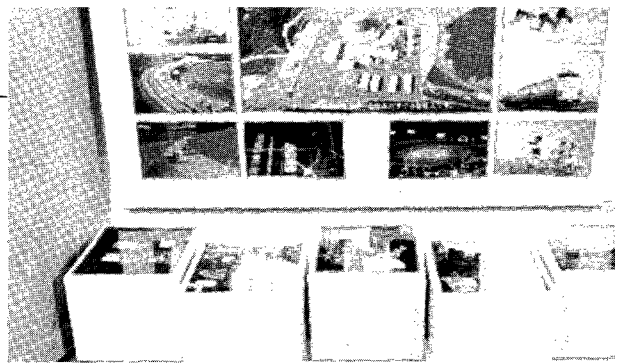


었다.

또 靑林縣 六個所村의 연료사이클 3개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사업 추진비보조금 14억2,000만엔이 인정되었으며, 계속 지원을 해 간다.

또 원자레이저법농축에 대해서는 1989회계연도부터 새로 금속우라늄 생산시스템 조사에 착수하는 외에, 화학우라늄법에 대해서도 2개년계획으로 종합화시험을 추가 실시한다.



이밖에 발전로관계에서는 경수로개량 기술확증시험 등 위탁비 94억2,400만엔, 발전용 신형로기술확증시험 위탁비 44억8,200만엔이 인정되었다.

特 輯 世界各國의 原子力PA와 輿論動向

카나다 **카나다에서 原子力技術의 PA**

다음은 198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범태평양원자력협력위원회 (PBNCC)」의 Public Acceptance 실무그룹회의에서 캐나다原子力公社 부사장인 Ron Veilleux씨가 발표한 『原子力技術의 Public Acceptance』라는 내용과 역시 같은 기간에 캐나다原子力協會 (CNA)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Decina연구소」에 위탁하여 조사한 『원자력이용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자세』라는 내용을 함께 요약정리한 것이다.

카나다의 原子力發電事業

카나다의 原子力發電事業은 국영기관(Crown Corporation)인 캐나다원자력공사(AECL)가 이 나라 최대 전력회사인 온타리오·하이드로사와 기타 원자력산업계의 지원을 받아 설계하고 개발한 CANDU원자로에 기반을 둔 것이다. 현재 카나다에는 18기의 CANDU原電이 가동되고 있고, 4기가 건설중에 있다. 1987년말 현재 原子力發電量은 총 72,888GWh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발전량의 15.1%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중인 4기의 原電은 온타리오주 Darlington 原電으로서 총 3,600MWe용량이며, 1992년 상업가동 예정이다.

CANDU원자로는 세계 어느 원자로 보다는 좋은 운전기록을 갖고 있다.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지가 밝힌대로 가동률이 좋은 세계 10대 原電중(500MWe 이상급) 7기가 CANDU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反原電活動

카나다의 反原電運動은 지난 몇년동안 별로 수그러지지 않았다. 카나다에는 실제로 많은 反原電團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Energy Probe」, 「Green Peace」, 「Canadian Coalition for Nuclear Responsibility」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주요 쟁점으로는 CANDU 爐의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부터 폐기물과 食品

照射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또한 미국의 反核運動이 캐나다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Worldwatch Institute」 또는 「Ralph Nader's Critical Mass Energy Project」와 같은 단체는 캐나다의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反核·反原電團體중 많은 수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생겼고 또 대부분이 미국의 단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최근들어 환경문제가 논쟁의 주요대상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캐나다에도 새로운 형태의 이해단체가 생기게 되었다. 「Harmony Foundation」과 같은 환경단체는 또다른 각도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原子力産業界의 弘報事業

數年에 걸쳐서 일반대중의 이해를 증진하고 합의를 얻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 ① 원자력홍보책자, 정보교재 등의 발간 및 배포
- ② 강연회 개최 (강사지원)
- ③ 교사 및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④ 원자력홍보관 운영 및 견학·방문프로그램
- ⑤ 원자력산업에 관한 시청각자료 제작
- ⑥ 과학전람회(학생과학전람회 포함) 참가
- ⑦ 언론 및 정부관계 개선
- ⑧ 원자력특별전시회 개최

放射性廢棄物管理 弘報事業

폐기물관리문제는 Public Acceptance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홍보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原子力發電의 계속 확대와 관련하여 일반대

중이 가장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실증된 최종 폐기물처분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캐나다原子力公社(AECL)는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 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폐기물처분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현재 대부분 과학계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기술수준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실천하는데에는 일반대중은 물론 폭넓은 과학계의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폐기물사업에 대한 캐나다政府의 관심은 매우 높다. 캐나다정부는 AECL에게 폐기물처분 후보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러가지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지시했다. AECL은 지역주민에게 사업진행의 내용을 주요 연구내용과 함께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하여 AECL은 영화필름, 팸플릿, 교사들을 위한 교재, 슬라이드·녹음테이프 소개자료, 전시, 책자, 포스터, 음반, 신문논설, 기술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들 홍보자료는 지역주민이나 사회 각계에 직접 우송하기도 하고, 각종 행사에 전시하여 참가자들이 가져가게 하고 있다. 또 주요 신문기사를 발췌하여서 관련기관에 보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문에 광고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이밖에 강사지원, 영화필름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협력사업으로는 폐기물처분 후보지역의 주민과 주민대표 등 영향력 있는 인사에게 AECL의 사업내용을 꾸준히 알리는 일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AECL이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정치협력사업으로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고위공직자나 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폐기물사업에 대하여 꾸준히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설명하거나 또는 회의 같은 곳에서 브리핑하는 것이다.

언론협력사업은 중앙언론기관과 지방언론기관을 포함하여 수행되고 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는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이며, 여기서는 원자력이용과 폐기물관리의 배경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

특별이해단체와의 대화프로그램은 몇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폐기물관리의 사회적·인간환경적 측면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교적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두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폐기물처분기술에 대한 일반대중의 지식과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그 한가지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폐기물관리기술이 전체 사회로 부터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힐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原子力PA事業

캐나다의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여러 기관이 원자력에 대한 일반대중의 견해를 계속 청취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일반대중의 관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일반대중이 실제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홍보계획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이지 아닐 수 없다.

원자력사업이 캐나다에서 시작된 이래 지난 30여년동안 일반대중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지지도는 서서히 부식되었으며, 이 같은 경향은 체르노빌이후 특히 두드러졌다. 즉, 지지쪽이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는가 하면, 반대로 반대쪽은 부쩍 자라났다.

1987년초 캐나다 원자력산업계는 지금까지의

각종 홍보사업 외에 일반대중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키 위한 어떤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적으로 착안한 것이 親원자력연맹을 공식으로 결성하는 것이었는데, 캐나다원자력협회(CNA)가 주동이 되었으며, CNA가 구심점이 되어 원자력발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관련단체와 연대강화를 결성토록 하는 것이었다.

1987년 6월 CNA가 중심이 되어 원자력Public Acceptance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연구사업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게 되었다.

○食品照射와 우라늄 채광에 관한 것은 포함해서 원자력산업에 대한 일반대중의 지식 정도가 의외로 낮았다.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야는 核醫學分野였으며,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은 원자력산업에 대하여 별로 알고 있지 못했다.

○發電方式의 하나로서 원자력이용을 지지하는 편은 겨우 체면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였고, 오히려 유동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이 중간계층의 의견중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편이 조금 많아서 42%였고, 「어느 정도 반대한다」는 편은 25%였다.

○원자력의 선택을 지지하는 편은 주장은 「안정공급」과 「기술혜택」이었다.

○원자력의 선택을 반대하는 편은 안전성, 즉 캐나다에서도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방사선평해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이었다. 또 폐기물에 대해서도 산업계가 폐기물처분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며, 폐기물의 안전처분방법이 확고히 될 때까지는 원자력발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원자력이용에 대한 찬반 견해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으나, 계층별로 보면 여성이 훨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브리티쉬·콜롬비아」, 「퀘벡」, 「노바·스코샤」주의 주민이 원자력산업에 대하여 소극적이었으며, 특히 안전성과 폐기물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온타리오」주의 주민(특히 남성 및 청년층)은 긍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조사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력산업계가 일반대중과의 대화를 증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확실히 대두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지적된 것은 원자력산업이 신뢰성있는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알리기에 앞서 산업계 자체가 신뢰성있는 사업자, 믿을 만한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때 이 문제를 변호하느라고 급급하느니 보다는 신뢰성있는 사업자가 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극복토록 하는 것이 보다 正道를 걷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여 원자력산업계가 신뢰를 받을때에 일반대중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Decima輿論調査

1988년 11월말 캐나다원자력협회(CNA)는 신뢰성있는 여론조사기관인 Decima 연구소에 위탁하여 캐나다 전역에 걸친 원자력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이번 여론조사는 캐나다에서 실시된 가장 최근의 조사라는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크게 다음 두가지이다. 첫째, 원자력발전을 캐나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아울러 앞으로의 에너지수요에 있어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캐나다 원자력산업계가 과연 일반대중과의 대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여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자는 것이었다.

조사는 이틀동안 무작위로 추출한 성인 1,200

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하여 수행되었다. 전에도 이런 식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100명 중 95명이 응답해 주었고, 결과의 적합도는 ± 97.1%였다. 질문내용은 35개 문항이었고, 인터뷰시간은 13분 걸리는 것이었다.

主要發見事項

① 에너지源으로서의 원자력이용 : 원자력 문제는 캐나다국민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캐나다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도 환경적인 문제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단 3%만이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답했을 뿐이었다. 반면,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고(39%), 그 다음이 실업(10%), 정부의 예산문제(10%)의 순서였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산성비(29%), 대기/수질오염(20%), 기타 산업공해(24%)의 순서였다.

다음의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캐나다국민들은 원자력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었다. 발전방식에 있어서 원자력이용을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었다.

〈原子力利用에 대한 지지도 요약〉

● 발전방식의 하나로써 원자력이용	○ 적극 지지한다 (17%) ○ 어느 정도 지지한다 (45%) ○ 어느 정도 반대한다 (22%) ○ 적극 반대한다 (15%)
● 대규모 이용이 가능한 에너지源으로서 원자력	○ 잘된 선택이다 (21%) ○ 현실적인 선택이다 (57%) ○ 잘못된 선택이다 (21%)
● 앞으로의 캐나다 에너지수요를 생각할때 원자력발전소	○ 매우 중요하다 (43%) ○ 어느 정도 중요하다 (39%) ○ 별로 중요하지 않다 (12%) ○ 결코 중요하지 않다 (6%)

(※ %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견을 말해 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이 최소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캐나다 에너지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원자력 이용에 대한 이 같은 생각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 주의 주민이 원자력발전을 어느 지역 주민 보다 더 지지하고 있었다.

② 原子力利用에 대한 지지 이유 : 첫째,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국민의 대다수(87%)가 앞으로 몇년후에는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럴때에 원자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응답자중 18%만이 원자력 이외의 發電方式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조성되어 있는 수력자원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응답자중 36%는 만일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캐나다의 풍부한 수력자원을 이용하면 전력문제는 별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 원자력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데에는 원자력이 결국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폐기물문제이다. 캐나다국민이 환경문제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우선순위는 첫째 酸性비(35%), 둘째 산업독성폐기물처분(28%), 셋째 발전소폐기물 처분(20%), 넷째 온실효과(16%)인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발전소폐기물처분에 대하여는 석탄사용과 핵연료사용에 따라 의견이 확실히 나누어지고 있다. 일반대중에게는 석탄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분진 등도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석탄사용이 酸性비와 温室効果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며, 핵연료는 그렇지 않다」는 설문에 대하여 68%가 원자력을 選好하였으며, 석탄화력은 19%만이 고수하였다.

어쨌든 환경문제에 있어서 방사성폐기물처분은 상당히 높은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원자력산업계가 과연 방사성폐기물을 옹계 처리·처분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을 염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6%가 산업계의 능력에 의심을 보여주었다. 캐나다

전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성된 방사성폐기물의 누적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일반대중은 막연하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큰 축구장에 가득찰만한 양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39%였고, 큰산 만큼 많다고 생각한 사람이 37%였다.

셋째, 안전성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였지만, 특히 反原電측은 안전성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29%만이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까지 방사선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원자력산업계가 안전절차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71%), 또 캐나다의 원자로는 미국 것 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美國原子爐 對 캐나다原子爐의 安全性에 대한 견해〉(캐나다원자로가 미국원자로에 비하여)

○월등하게 안전하다	(17%)
○어느 정도 더 안전하다	(37%)
○같다	(41%)
○어느 정도 더 위험하다	(4%)
○상당히 위험하다	(1%)

이상 원자력이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캐나다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지지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이야말로 앞으로의 에너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중요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안전성과 폐기물문제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③ 原子力産業界에 대한 평가 : 응답자의 반수 정도가(47%) 원자력산업계가 일반에게 좋은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홍보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캐나다 사람은 원자력산업계가 일반대중과의 대화노력이 부족하며(65%), 정보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64%) 믿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사항, 즉 원자력이용에 대한 견해, 원자력산업계의 홍보노력평가와는 관계없이 일반대중은 원자력에 대하여 보다 많이 배우고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CNA는 원자력을 알리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갖게 해준 것이었다. CNA가 어떤 단체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중 28% 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을 뿐이었다.

〈原子力産業에 대한 정보 요망 정도〉

○상당히 많이 알고 싶다	(45%)
○그저 좀더 알고 싶다	(23%)
○조금 정도는 알고 싶다	(22%)
○알고 싶지 않다	(11%)

主要 弘報事業

캐나다原子力協會(CNA)는 1987년 12월부터 새로운 차원에서의 홍보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우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초기단계에서는 신뢰성 구축을 위해 알기쉬운 「부드러운」 방식을 택하고, 후반기에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초기단계는 1987년 12월부터 1988년 7월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이 기간중 신문, 잡지 등에 광고 기사를 게재하는 한편 TV광고프로그램을 만들어 6개월간 방영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신문과 잡지에 광고 기사를 게재하며 TV 스포트광고를 放映토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방법인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었다. 초기단계 홍보대상은 일반대중(18세 이상의 성인)과 여론지도층이었다.

신문과 TV광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홍보사업도 계속 추진되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 전국에 걸친 수천명 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 적극적인 언론관계프로그램.
- 원자력기술에 관한 비디오 제작.
- 각종 홍보책자 발간, 학생들을 위한 과학교재 제작(실험기재 포함).
- 무료상담 전화창구 개설.
- 강사진 운영. 어느 단체든지 강연을 요청하면 즉시 적당한 강사를 파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같은 홍보운동의 목적은 일반대중을 교육시켜, 결국 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토록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초기단계사업이 1988년 7월 마무리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CNA는 1,600건의 정보요청을 받았으며, 일반대중, 정부측, 학교, 각종 홍보센터에 2만부 이상의 홍보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홍보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렇지만 1988년 5월 실시한 조사의 결과는 고무적인 것이었다. 떨어졌던 원자력에 대한 지지도가 안정되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실제로 반대 견해가 현저하게 줄어들기까지 했다.

생각컨대 점점 더 많은 캐나다국민이 수려한 이제 한정되어가고 있고, 앞으로의 에너지수요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겠느냐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전체 대중의 90% 이상이 원자력에 대하여 좀더 알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CNA운동의 제2단계는 1988년 9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제1단계(초기단계)에서의 모든 사업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새로운 정보내용을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酸性비에 관한 소개책자 같은 것은 좋은 예이다.

CNA는 학교 선생님들과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력회사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홍보사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일반대중의 관심사항에 어떻게 해답을 주고 있는지 평가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당초 수립한 목적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結 論

캐나다 원자력산업계가 일치된 생각으로 합심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 활동은 앞으로 몇년에 걸쳐 계속 성장하고 확대될 것이다. 왜냐 하면 일반대중의 합의를 획득한다는 것은 원자력기술의 앞날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캐나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일이다. 따라서 원자력 Public Acceptance를 위한 국제협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합심할때에 Public Acceptance는 달성될 것이며, 원자력이야말로 중요한 에너지선택으로서 남게 될 것이다.

特 輯

世界各國의 原子力PA와 輿論動向

美國

美·英의 輿論調查 結果

- 原子力の 重要性을 再確認 -

美國 Cambridge Reports社가 미국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1988년 11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와 英國의 MORI社가 영국의 성인 1,068명을 대상으로 1988년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 두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앞으로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장래의 에너지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調査에서 앞으로 10년간 어떤 에너지가 主要電源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美國에서는 33%가 原子力을 들었으며, 영국에서는 40%가 原子力이라고 응답하여 1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두번째 主要電源으로는 미국의 경우 태양 에너지(17%)였고, 영국에서는 석탄(19%)이었는데 태양에너지는 미국과 달리 단지 2%에 머물렀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국민들은 앞으로 自國의

〈앞으로 10년동안 어떤 에너지가 主要電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